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 ▲ 일간지 기고, ▲ 버스·지하철·KTX 역사 광고, ▲ 유관기관 홍보물(포스터·리플렛·스티커) 배포, ▲ 라디오·검색엔진·메신저앱 광고, ▲ 유통(GS25,CU)·제약업계(대한 약사회, 동아제약) 협업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최초 63명 신청하였으나, 상담후 11명 철회하여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 심층상담 178명(원가정양육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 19명, 보호출산 52명, 미정 등 기타 15명), 단순상담 723명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 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 기준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 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 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최대 3개월)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동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044-202-342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제도 개요
 2. 지역상담기관 목록

붙임 1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지역	기관명	주소
서울특별시	애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경기도	광명 아우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지번 : 율량동 120)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전라남도	성모의 집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